12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위건 JJB 스타디움에서 열린 위건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뒤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소탱크' 박지성 '꿈의 무대' 주역되다

## 올 정규리그 12회 출전 맹활약 '화려한 부활'

## 챔스리그까지 우승하면 상금 16억여원 챙겨

'오뚝이 박지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산소 탱크' 박지성(27)이 2007-2008 시즌 긴 부상 터널에서 빠져나와 맨유 전력의 핵심으로 우뚝 섰다.

박지성은 11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위건 JJB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위건 어슬레틱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서 선발 출격해 팀 우승을 이끌며 기분 좋게 시즌을 마쳤다.

정규리그에서 총 12차례 출전에 선발이 8차례였고 그 가운데 2차례 풀타임을 뛰었다. FA컵에서는 2번 선발로 나와 풀타임이 한 번 있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AS 로마(이탈리아)와 8강부터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준결승까지 4차례 연속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을 결승에 올려놓았다.

공격포인트는 정규리그에서 기록한 1골 1도움, 단순히 기록만 보면 지난 시즌의 5골 2도움보다 부진한 성적이지만 박지성은 세계 최고 클럽 가운데 하나인 맨유에서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확실한 주전으로 거듭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즌이었다.

지난 시즌 무릎을 다친 박지성은 수술에 이어 긴 재활을 거치고 시즌 중반에야 복귀했다. 작년 12월27일 선덜랜드와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박지성은 후반 12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대신 교체 투입되며 무려 270일만에 그라운드에 섰고 100% 회복된 모습으로 질주했다.

박지성은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을 2년연속 목에 걸었고, 프리미어리그 2회 연속 우승을 맛본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다.

명예 뿐이 아니다. 엄청난 '가욋돈'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초 AFP 통신은 프리미어리그가 2007-2008 시즌부터 향후 세 시즌 중계권 계약을 새로 하면서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폰 중계료 등을 합해 무려 27억파운드(한화 5조5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각 구단에 분배되는 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리그 우승팀에는 5천만파운드(1천억여원)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권 료 수익의 50%를 20개 팀에 균등 배분하고, 25%는 상금 성격으로 성적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맨유 선수들에게 돌아갈 리그 우승 보너스도 여기서 나온다.

2005년 여름 맨유에 입단한 박지성은 이듬해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 200만 파운드에서 40% 인상된 280만 파운드(57억여원)의 연봉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 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시 각각 연봉의 10%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는 옵션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28만 파운드(5억7천여만원)의 보너스를 챙기게 된 셈이다. 게다가 최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맨유 구단주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2관왕을 차지하면 선수들에게 각각 25만 파운드(5억1천여만원)의 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했다.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하면 박지성은 2관왕만으로 무려 16억5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린다.

지난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지성은 이번 시즌 무릎 부상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규리그 12경기에 출전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치며 2년 연속 우승메달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긱스도 1990년 맨유 유니폼을 입은 뒤 통산 758경기에 출전, 귀중한 추가골과 함께 보비 찰턴이 가지고 있던 역대 최다출전 기록과 동률을 이루면서 '레전드'의 탄생을 알렸다.

우승 경쟁을 펼친 첼시는 볼턴과 홈 경기에서 안드리 셉첸코의 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두는 듯 했지만 경기 종료직전 동점골을 내주면서 두 시즌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 예비 프리미어리거 김두현 웨스트브롬으로 완전 이적

다음 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김두현(26)이 올해 몸담았던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이하 웨스트브롬)으로 완전히 이적한다.

김두현의 에이전트인 정재훈씨는 12일 "지난 주 웨스트브롬이 이사회를 열어 김두현과 계약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음 주 수요일 정식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국내 프로축구 성남 일화 유니폼을 입고 활약한 뒤 지난 2월 '6개월 임대 뒤 완전 이적' 조건으로 웨스트브롬에 입단했던 김두현은 2008-2009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게 됐다.

미드필더 김두현이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31·토트넘 홋스퍼), 설기현(28·풀럼), 이동국(29·미들즈브러)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다섯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中서 올림픽 성화 탈취 기도

## 군중 몰려 한때 꺼지기도

베이징올림픽 성화를 봉송중인 중국에서도 성화 탈취 기도와 함께 몰려든 군중으로 성화가 꺼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8일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성화봉송 도중 환영인파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자 공안이 성화를 꺼야했다고 12일 보도했다. 한 목격자는 당시 봉송로 한 지점에서 남자 5명이 성화를 빼앗으려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홍콩의 인터넷 뉴스사이트인 아시아센티넬은 노동자로 보이는 두 남성이 갑자기 봉송로에 뛰어들면서 성화가 꺼졌다고 전했다가 나중에 이 보도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서 기사를 자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에선 통신회사 직원 탕(湯·28)모씨가 인터넷 채팅룸에 올림픽 성화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공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홍콩 신보(信報)가 전했다.

## 맨유, 정규리그 2연패

### 통산 17번 우승… '지성 선발=무패 행진' 완성

■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첼시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정규리그 2연패를 달성하면서 통산 17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맨유는 12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위건 JJB 스타디움에서 끝난 위건 애슬레틱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에서 전반 32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페널티킥과 후반 34분 라이언 긱스의 추가골을 합쳐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맨유는 27승6무5패(승점 87·골득실+58)로 이날 볼턴 원더러스와 1-1로 비긴 첼시(25승10무3패·승점 85·골득실+40)를 물리치고 1992년 시작된 프리미어리그에서 10번째 우승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전신인 프로축구리그(The Football League) 시절까지 합쳐 총 17차례나 1부리그 챔피언에 올라 역대 최다 우승팀인 리버풀(18회 우승)의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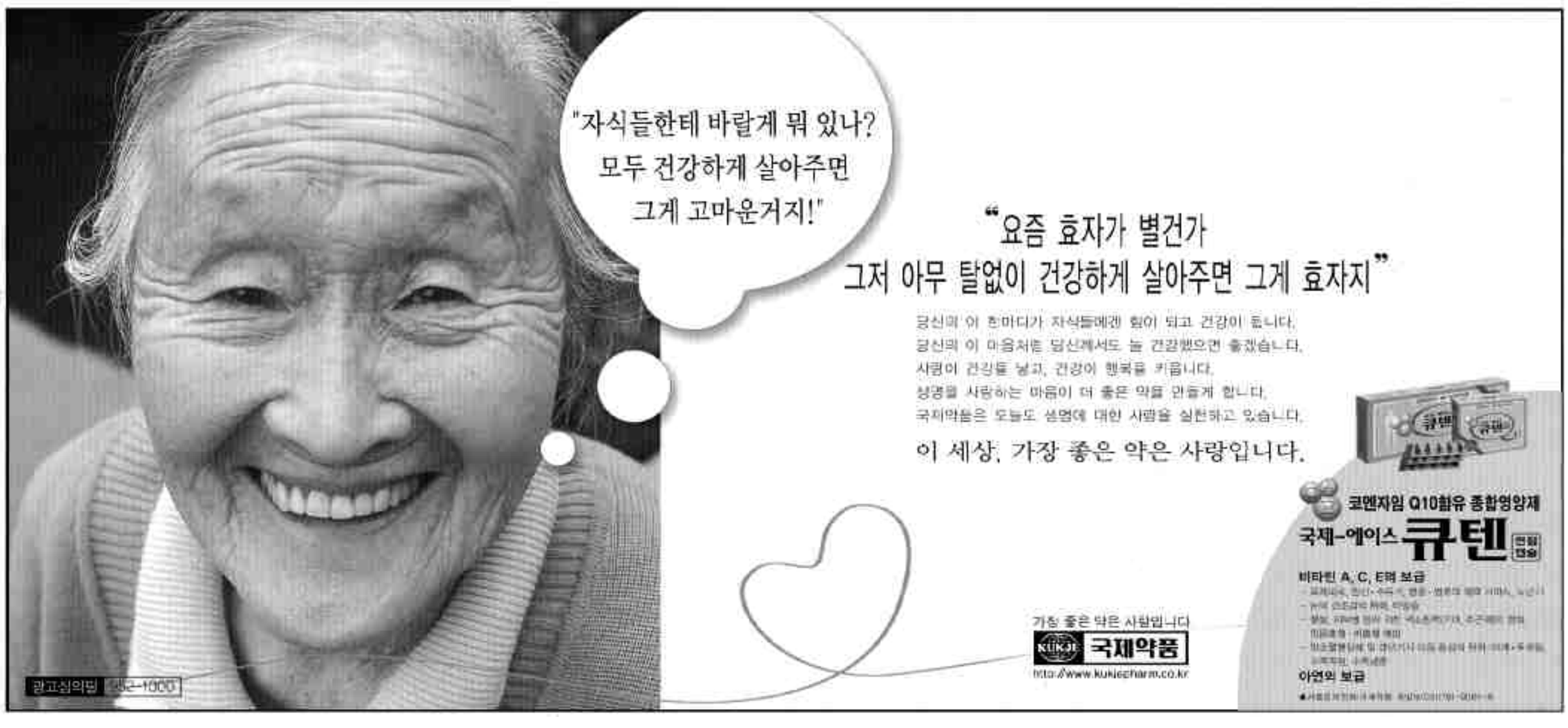
왼쪽 공격수로 선발출전한 박지성은 공수에 걸쳐 좋은 몸놀림을 펼친 뒤 후반 23분 긱스와 교체됐고, 이번 시즌 출전한 14경기(13승1무)에서 모두 무패를 기록해 '선발출전 =무패행진'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완성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1986년 맨유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개인 통산 10번째 정상을 밟았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정규리그 31골로 득점왕을 차지해 맨유 우승의 주역이 됐다.

### 스포츠 주게

13일 (화)

▲2008 메이저리그〈보스턴 : 미네소타〉(07 : 55·XPORTS)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13 : 50·SBS 스포츠)

▲2008 프로야구 〈삼성 : 롯데〉(18 : 00·KBS NSPORTS), 〈한화 : 기아〉(18 : 30·MBC ESPN), 〈두산 : SK〉(18 : 00·SBS스포츠), 〈LG : 우리〉(18 : 20·XPORTS)